

방사능 검사 2배 늘렸지만 '삼중수소'는 안해 어민들 불만

목포수협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 가보니

새벽 2시~2시30분 경매 앞서 수산물 방사능 수치 검사
요오드와 세슘 2가지 시행 ... 기준치 초과 땀 유통 막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강화하면서도, 정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6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새벽 1시 30분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목포시 죽교동 서남권수산물종합유통단지(목포수협 위판장). 새벽 5시 열리는 경매에 대비해 전날 잡은 수산물을 상자로 옮기는 어민들과 항온노조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경매에 내놓을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수치 검사가 매일 새벽 2시~2시30분 사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목포수협 위판장 경매에 나온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는 지난 주 가장 많이 출하된 어종을 기준으로 매일 한 품목을 선정해 시료채취 후 검사하게 된다. 선정된 시료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목포지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송, 감마핵종분석기를 통한 방사능 수치 검사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목포지원으로부터 시료채취를 위탁받은 대한수산물질병관리사회 직원 두명은 각자 시료의 무게를 계량하는 전자저울과 시료를 담을 하얀 위생봉투를 들고 위판장을 찾았다.

지난주 출하량을 기반으로 결정된 이번 주 시료채취 예정품목은 주로 갈치와 민아·벤댕이 등이었고, 이날은 갈치가 시료로 채택됐다.

위탁업체 직원들은 위생봉투에 무작위로 선별된 갈치 3kg을 담아 목포지원으로 옮겼다.

목포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된 시료는 방사능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인 한국방사능분석협회 직원이 신속검사를 하는데, 뼈와 내장을 분리해 먹을 수 있는 가식부위 1kg을 감마핵종분석기로 분석한다.

신속검사는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경매가 열리기 전까지 검사결과가 어민들에게 통보된다. 이는 최초

유통지인 위판장에서 경매가 열리기 전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유통 전 검사'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국내 전체 수산물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유통 전 검사를 시범운영했고 지난 21일부터 본격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위판장에서 당일 경매가 열리기 전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경매 자체를 취소해 최초 유통지인 위판장에서부터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인 100Bq/kg을 초과해 경매가 취소된 적은 없다.

하지만 감마핵종분석기를 통해 검사되는 항목은 요오드와 세슘 2가지다. 첫 검사에서 방사능 수치가 1Bq/kg을 초과하면 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만, 정작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논란이 됐던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 없이 해수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동일한 항목(요오드, 세슘)에 대해 민간업체에 위탁한 형태로 시행 횟수만 늘리고 있다.

어민 박모(51)씨는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다고는 하지만, 어민들 사이에서는 표본 조사인데다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항목이 빠져있는 등 '눈가리고 아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4000여 건 시행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올해 8000여건을 목표로 검사 횟수를 2배 늘렸고, 지난 22일 기준 6160여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목포·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새벽 목포 수협 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맡은 직원들이 경매에 앞서 갈치에서 방사능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오후 1시 방류

해수 삼중수소 농도 27일 공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정화해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최초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전날 착수했다.

도쿄전력은 전날 오후 7시 33분께 오염수 약 1t(톤)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 바닷물 1천200t을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L당 1500베크렐(Bq) 이하로 확인되고,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염수 방류는 예정대로 24일

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류가 시작되면 웹사이트 가동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새로 만들어지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등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K4'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등이다.

일본과 IAEA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한 우리 정부 차원의 웹사이트도 곧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소개했다.

박 차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이날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와 관련, "아마 날씨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방류가 이뤄져야 저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방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모니터링과 사후 감시체계 등에 시간적으로, 기술적으로 비는 부분이 없도록 대응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까지 비 50~100mm 쏟아진다

시간당 30~60mm 폭우도

서해상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25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5일 아침까지 광주·전남에 50~100mm, 전남 남해안, 지리산 등 많은 곳은 150mm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23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광주와 전남 18개 시·군(나주, 해남, 함평, 영광, 장성, 장흥, 강진, 완도, 영암, 구례, 여수, 광양, 순천, 곡성, 담

양, 화순, 고흥, 보성)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지만 25일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 오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25일 오후부터 비는 차차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주의하길 바란다"며 "돌풍과 천둥·번개,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5·18조사위 "청문회 준비 안됐다" 사과 ▶7면

이강인 허벅지 부상, 9월 A매치 참여 불발 ▶18면

새팔도명물 - 경남 남해안 전어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